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충청 서해안 어촌을 중심으로*-

김 영 조**

An Investigation on the Actual State of the Fishing Villages and the Attitudes of Fishermen

Kim, Young - Joe

目	次
I. 서론	2. 어업생산구조
II. 어촌경제 개황	3. 어촌경제 실태
1. 어업인구	4. 어민들의 직업의식과 직업만족도
2. 어업생산	5. 환경오염 문제
3. 어가경제	IV. 결론
III.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참고문헌
1. 표본	Abstract

I. 서론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래 정부의 강력한 성장 위주의 정책에 힘입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은 크게 보아 근대화론의 기본전제와 이론적 경향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어 왔는데, 이러한 근대화론은 국민경제를 근대적 부문과 전통적 부문으로 나누고 근대적 부문을 도시 중심의 산업화와 연관시키며 전통적 부문을 농어촌 중심의 비효율적인 농어업 활동과 연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적 모델은 국가적 자원을 근대적·도시적 부문에 집중할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다(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0, 195쪽). 우리 경제는 이러한 경제개발정책 하에서 단기간에 경제규모의 양적 증대와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침체 등 지역간 사회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경제부문간의 불균형

* 이 논문은 1997년 부경대학교 기성희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근대화론에 기초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농어업 부문은 극도로 피폐화되었고 '농어업 위기'를 말할 정도로 농어업의 발전 전망은 매우 어두우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나날이 확대되어 왔다. 국내총생산(GDP)중 농림어업의 비중은 1963년의 43.4%에서 1981년 15.8%로 급격히 떨어졌고, 1996년에는 6.3%로 더욱 낮아졌다. 1970년대 근대적인 과학기술과 새로운 생산수단의 보급으로 농어업 부문은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인 저성장을 보여 왔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게 낮아져 경제부문간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농어가의 실질소득도 대체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80%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농어업 수지의 악화로 농어가 부채는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의 농어업의 최대 위기는 농어업 생산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업 노동력의 고갈에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업 부문의 인구나 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도시 부문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이농·이어(離農·離漁)는 '저농산물가격-저임금 구조'로 요약 설명할 수 있다. 저농산물가격은 농업생산물의 가격과 공업생산물 가격 사이의 부등가교환을 뜻하는데, 저농산물 가격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시키는 기본 조건으로 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저농산물 가격에 의해서 도시노동자의 생계비를 저하시킴으로써 저임금을 가능하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인해 몰락한 농가들의 이농을 통해 도시부문의 노동력 시장에서 산업예비군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임금의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다(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0, 202쪽). 이와 같이 산업화 과정에서의 정부정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저임금과 물가안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규정하여 농어업 부문에 대한 다양한 지배방식을 구축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농어민의 농수산물은 재값 받기가 불가능한 구조적 상황으로 적자경영이 불가피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영농·영어(營農·營漁)비용과 비싼 공산물 가격, 높은 교육비 부담 등 소비와 지출은 더욱 증대하여 농어가 경제의 궁핍은 계속 심화되어 왔다(천주교광주대교구 사회교육부, 1988, 7쪽).

이와 같은 도시부문과 농어업 부문간 소득격차 및 농어가 경제의 악화는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과 이농·이어를 가속화시켰고, 특히 젊은 층들이 농어촌을 떠남으로써 농어촌 노동력의 부족 및 고령화 현상을 초래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에 농어업에 종사할 농어민후계자가 거의 고갈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는 환경오염이나 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생태계 변화로 어족자원의 심각한 고갈을 가져옴으로써 어업생산량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손실 피해보상제도에 의해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어업활동의 피해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피해 보상이 어민들의 생활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의문이다. 더 나아가서 어족자원의 고갈에 따른 어업의 피폐화와 어촌의 공동화(空洞化) 문제는 피해보상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촌 문제의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촌사회의 실태와 어민들의 의식

을 조사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어촌 사회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 부문과 광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농어촌 부문과 농어업 부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어촌 사회에 대한 연구는 농촌 사회에 대한 연구보다도 매우 덜 이루어진 실정이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수호 교수(1978,1979)는 어민을 위한, 어민에 의한, 어민의 조직인 어촌계(漁村契) 조직의 현황과 그 유형, 제도적 성격, 어촌계 조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촌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 김우성 교수(1984)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공용식·최정윤·이강우 교수(1984)는 '어촌개발을 위한 사회·경제적 연구'로서 어촌의 사회경제적 기본구조, 어촌생활의 사회경제적 조건 분석, 그리고 어촌개발과 각종 어촌생활요소간의 상관성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어촌의 복지에 관한 연구로 이강우 교수(1985)의 연구가 있다.

어촌사회의 실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는 천주교광주대교구 사회교육부 농어촌조사위원회(1988)의 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어촌실태 조사연구에서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치 의식 및 어촌문제(어가부채 문제, 농어민후계자 문제, 공해 문제, 수협 문제, 어촌계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어촌 문제에 대해 어민들과 좌담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1980년대 어촌 실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어민들의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한 연구로는 공용식·최정윤·이강우 교수(1984), 천주교광주대교구 사회교육부 농어촌조사위원회(1988), 이현우 교수(1990), 그리고 최재율 교수(1991)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어촌문제의 분석을 위해 어민들의 직업관, 어민들의 생활수준, 어촌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전망, 어촌생활 및 어촌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촌 사회의 실태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문헌연구, 현장조사 및 면접방법, 그리고 설문조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방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체 어업인구의 변화, 어업생산력 및 어가경제의 현황 등 어촌 경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어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현장조사와 면접방법을 통해 조사대상 어촌의 현실태와 어민들의 의식 및 태도를 파악하였는데, 이들 조사결과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활용하였다.

셋째, 현재 어업 및 어촌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어민들의 어업생산방식과 어가 경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어촌경제 현실 및 전망에 대한 인식, 직업의식과 직업만족도, 근로 의욕과 이어(離漁)의사 등 어민들의 여러 가지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및 어업손실 피해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도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어촌사회의 실태와 어민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

<표 1> 어업노동력의 변화 추이

연 도	어업가구수	어업가구원수		어업종사자수	어가인구비율*(%)
			호당평균		
1965	215,114	1,276,808	5.94	546,394	4.4
1970	194,601	1,165,232	5.99	367,645	3.6
1975	153,545	894,364	5.82	322,911	2.5
1980	156,934	844,184	5.37	323,166	2.2
1985	145,274	689,351	4.75	260,326	1.7
1990	121,525	496,089	4.09	211,753	1.2
1991	119,756	469,520	3.92	204,596	1.1
1992	116,165	424,939	3.66	206,624	1.0
1993	113,617	404,610	3.56	206,569	0.9
1994	110,415	381,864	3.46	197,782	0.9
1995	104,480	347,210	3.32	176,123	0.8
1996	101,677	330,464	3.25	171,822	0.7

* 어가인구비율(%)=(어업가구원/총인구)×1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1997.

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촌개발 등 어업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문제는 단순히 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며, 또한 우리 나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민경제의 불균형 발전으로 어업의 폐쇄화와 어촌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경우 그 결과로 인한 어업인구의 도시유입은 도시빈민층으로의 편입을 가져오게 되며 결국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이면서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부문간의 균형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즉, 농어업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어촌경제 개황

1. 어업인구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은 경제부문간 성장률의 차이를 낳고 이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 및 고용구조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업부문의 인구 및 노동력의 감소는 절대적인 감소와 상대적인 감소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부터 1996년까지 어업가구수, 어업가구원수, 어업종사자수 등 어업노동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어업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감소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의 어업가구수는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이전인 1965년(215,115호)에 비해 52.7%나 감소한 101,677호이고, 어업가구원수는 1996년에 330,464명으로 1965년의 1,276,808명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어업종사자수도 1965년 546,394명에서 1996년에는 171,822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어업가구원수를 총인구수로 나눈 어가인구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65년에 4.4%에 이르던 것이 1996년에는 1%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표 2> 연령별 어업가구원수

연령	1987년		1996년				전체 인구(1996년)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체 인구	비중(%)
0-14세	183,363	28.9	50,867	15.4	-	-	10,411,000	22.9
15-19세	83,807	13.2	33,255	10.1	236	0.1	3,942,000	8.7
20-29세	67,353	10.6	27,448	8.3	5,765	3.4	8,629,000	18.9
30-39세	72,135	11.3	35,999	10.9	26,340	15.3	8,448,000	18.6
40-49세	89,302	14.1	52,508	15.9	44,031	25.6	5,709,000	12.5
50-59세	76,883	12.1	63,539	19.2	53,627	31.2	4,060,000	8.9
60세 이상	61,923	9.8	66,848	20.2	41,823	24.4	4,347,000	9.5
총계	634,766	100.0	330,464	100.0	171,822	100.0	45,545,000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8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통계연보, 1997.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7.

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어업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감소도 산업화과정에서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업인구의 감소는 산업화로 인한 어촌인력의 도시 유입과 낙후된 어촌 생활환경,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그리고 힘든 어로작업의 기피 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부문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농어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되었다. 이들 이촌향도(離村向都) 인구는 도시부문에서 저렴한 노동력의 풍부한 원천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업노동력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어업인구의 감소 추세는 산업화가 충분히 전개되어 도시부문의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1990년대 들어와서도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 을 기피하는 사회현상과 맞물리면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머지 않아 어업노동력의 고갈, 그리고 이로 인한 어업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가구원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젊은층은 1987년 52.7%에서 1996년에는 33.8%로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노년층은 21.9%에서 39.4%로 대폭 증가하여 어촌의 인력구조가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업종사자의 연령별 구성비의 경우 50세 이상의 노년층이 55.6%를 차지해 어업종사자의 반 이상이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인구의 구성비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어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6년 현재 30세 미만 인구의 경우 어촌은 33.8%로 전국 인구의 구성비(50.5%)에 비해 16.7%나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는 39.4%로 전국 구성비(18.4%)에 비해 21.0%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의 인구구조는 노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젊은층들이 어촌을 떠남으로써 다음 세대에 어업에 종사할 어민후계자가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어업생산

우리 나라 수산업은 1960년대까지 어로수단, 장비·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해 연안 채포(採捕)어업이 주요 어업형태였으나, 1970년에 들어와 어구(漁具)·어법(漁法) 등의 기술과 양식기술의 발전, 그리고 원양어업의 신장세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고, 1980년대에는 이러한 기술개발을 토대로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도 수산물 총생산량은 213만 4,979톤이던 것이 1985년도에는 310만 2,605톤에 이르러 1975년에 비해 45%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렇지만 1985년 이후에는 비교적 성장세가 둔화되어 매년 300만 - 350만톤 수준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1994년에 347만 6,587톤으로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어업생산액은 1970 - 80년대에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1990년 어업총생산액은 2조 8,270억원으로 1975년의 3,159억원에 비해 9배나 증가하였고, 1996년은 4조 4,214억원으로 1975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액수이고 1990년에 비해서는 56.3% 증가한 수치이다. 그렇지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총생산에 대비한 어업생산액의 상대적인 비중을 살펴보면, 1975년도에 3.12%에 이르던 것이 해마다 줄어들어 1996년에는 1.14%에 머무르고 있다. 즉, 어업생산액의 절대적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국민총생산에 대비한 상대적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어업생산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어업이 우리 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계속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의 어업형태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1996년 일반해면어업이 162만톤으로 50.1%를 차지하고 있고 천해양식어업과 원양어업이 87만톤과 71만톤으로 각각 27.0%와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은 3만 278톤으로 0.9%에 머무르고 있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해면어업과 천해양식어업은 1985년 이후 각각 130 - 160만톤과 80 - 100만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원양어업은 1980년대에 급속한 성장을 하다가 최고치(102만톤)를 기록한 1992년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되었다. 이는 최근 세계 연안국의 조업규제 및 입어(入漁) 조건 강화로 원양어업 환경이 날로 악화

<표 3> 연도별 어업생산량 및 어업생산액

연도	어업생산량(톤)	어업생산액(백만원) [A]	국민총생산(억원) [B]	비율 [A/B]
1975	2,134,979	315,969	101,292	3.12
1980	2,410,346	843,095	368,570	2.29
1985	3,102,605	1,676,999	793,011	2.11
1990	3,274,506	2,827,083	1,782,621	1.59
1991	2,983,222	3,174,966	2,142,399	1.48
1992	3,289,041	3,372,105	2,387,046	1.41
1993	3,335,531	3,669,207	2,655,179	1.38
1994	3,476,587	4,330,126	3,037,726	1.43
1995	3,348,184	4,157,217	3,489,793	1.19
1996	3,244,288	4,421,479	3,866,404	1.14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1997.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7.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표 4> 어업별 생산량 및 생산액(1996년도)

(단위 : 톤/백만원)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 계
1980년	생산량	1,370,324 (56.9)	540,564 (22.4)	460,232* (19.1)	39,226 (1.6)	2,410,346 (100.0)
	생산액	473,722 (56.2)	108,344 (12.9)	221,390* (26.3)	39,637 (4.7)	843,095 (100.0)
1985년	생산량	1,494,514 (48.2)	787,571 (25.4)	767,456* (24.7)	53,064 (1.7)	3,102,605 (100.0)
	생산액	856,441 (51.1)	226,334 (13.5)	508,523* (30.3)	85,699 (5.1)	1,676,999 (100.0)
1990년	생산량	1,542,013 (47.1)	772,731 (23.6)	925,331 (28.3)	34,431 (1.1)	3,274,506 (100.0)
	생산액	1,495,908 (52.9)	419,903 (14.9)	820,442 (29.0)	90,828 (3.2)	2,827,083 (100.0)
1996년	생산량	1,623,822 (50.1)	874,810 (27.0)	715,378 (22.1)	30,278 (3.2)	3,244,288 (100.0)
	생산액	2,735,079 (61.9)	643,322 (14.5)	917,788 (20.8)	125,289 (2.9)	4,421,479 (100.0)

* 포경어업 포함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년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통계연보, 1997.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96년 어업별 생산액은 일반해면어업이 2조 7,350억원으로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해양식어업이 14.5%(6,433억원), 원양어업이 20.8%(9,177억원), 그리고 내수면어업이 2.9%(1,252억원)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선세력당 어획량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연근해 어선의 총 척수는 1970년 5만여 척에서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1990년 5만 8천여 척으로 증가하였다가 최근 구조조정 사업의 결과로 다시 5만여 척으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어선의 톤수와 마력은 매년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총 마력은 1970년 약 44만 마력에서 1977년에 약 88만 마력으로 2배 증가되었고 1992년에는 480만 마력으로 197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되었다. 어선의 톤당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74년 약 5톤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선의 마력당 어획량 역시 1974년에 약 2톤의 최고치를 나타낸 후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 1995년에는 0.25톤으로서 1974년의 10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연근해어업의 총어획량은 1980년대 이후 거의 정체 상태인 반면, 어선의 세력은 매년 증대되고 있어 단위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수산회, 1996, 266쪽). 연안어장의 매립·간척으로 인한 연근해어장의 축소,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어장환경의 악화, 그리고 수산자원의 남획 등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가 이러한 생산성의 하락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하겠다.

3. 어가경제

1996년도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1,90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어가소득은 1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계속 보임으로써 1996년 어가소득은 1980년의 260만원에 비해 7.3배나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에 비해 절대적인 액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소득증가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583만원으로서 어가소득보다 35.6%나 많으며, 1980년의 281만원에 비해 9.2배나 증가함으로써 동일기간 어가소득의 증가율(7.3배)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대비한 어가소득의 비율은 1987년까지 90%를 상회하였으나, 1988년도부터 80%대로 떨어졌고 1996년도에는 73.7%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소득의 감소는 19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세력화와 노동자의 권리증대에 따른 임금 급상승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어쨌든 <표 5>의 어가소득 추이는 어가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머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가소득을 어업형태별로 구분해 보면(<표 6> 참조) 양식업 가구의 가구당 평균소득이 2,25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력선사용 가구가 2,112만원이고, 어선비사용 가구가 1,78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양식업 가구와 동력선사용 가구의 경우 어업소득이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어업의존도가 61.4%와 68.9%로 전국 평균(55.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어선비사용 가구는 어업의존도가 38.5%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어

<표 5> 어가소득 추이

(단위 : 원, %)

연 도	어가소득 [A]	전년대비 증가율	어업소득 [B]	어업의존도 [B/A]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C]	비율 [A/C]
1980	2,596,000	35.0	1,752,200	67.5	2,809,200	92.4
1981	3,042,357	17.2	1,978,458	65.0	3,372,000	90.2
1982	3,278,768	7.8	1,959,714	59.8	3,763,200	87.1
1983	4,109,144	25.3	2,570,076	62.5	4,308,000	95.4
1984	4,507,874	9.7	2,581,801	57.3	4,747,200	94.9
1985	4,868,746	8.0	2,815,169	57.8	5,085,600	95.7
1986	5,401,977	11.0	3,219,328	59.6	5,683,200	95.1
1987	6,165,553	14.1	3,419,687	55.5	6,637,200	92.9
1988	6,820,972	10.6	3,450,763	50.6	7,760,400	87.9
1989	8,078,978	18.4	4,151,746	51.4	9,658,800	83.6
1990	10,023,030	24.1	5,216,514	52.0	11,319,600	88.5
1991	11,308,723	12.8	5,284,608	46.7	13,903,200	81.3
1992	12,371,395	9.4	6,036,552	48.8	16,273,200	76.0
1993	14,431,567	16.7	6,221,695	43.1	17,733,600	81.4
1994	17,110,185	18.6	8,665,201	50.6	20,415,600	83.8
1995	18,780,121	9.8	9,437,156	50.3	22,933,200	81.9
1996	19,038,995	1.4	10,525,986	55.3	25,832,400	73.7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년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통계연보, 1997.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7.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표 6> 어가경제 주요지표(1996년)

(단위 : 원, %)

	어업의존도			어가자산	어가차입금
	어가소득(A)	어업소득(B)	비율(B/A)		
전국평균	19,038,996	10,525,986	55.3	102,908,330	12,342,020
어선비사용가구	17,860,052	6,880,054	38.5	89,040,637	5,363,730
동력선사용가구	21,121,580	14,572,865	68.9	119,070,510	15,318,080
양식업가구	22,540,111	13,837,929	61.4	108,364,650	13,595,61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1997.

선비사용 가구의 경우에는 어업소득보다는 어업외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가구당 평균자산은 1억 291만원으로 1980년의 318만원에 비해 32배 증가한 규모이며, 10년전인 1986년의 2,007만원에 비해서는 5배 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가구당 평균부채의 경우 1996년 1,234만원으로서 1980년의 56만원에 비해 22배 증가하였고, 1986년의 355만원에 비해서는 3.5배 증가하였다. 양식업 가구와 동력선사용 가구의 경우 시설투자로 인하여 평균자산도 많고 또 부채의 규모도 큰 반면에, 어선비사용 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Ⅲ.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1. 표본

본 조사는 어촌사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민들의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충청 서해안의 4개 연안촌락형 어촌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어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나서, 설문응답자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 어촌에 대한 개관

먼저 조사대상 어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A마을은 바다와 바로 접해 있는 마을로 150호에 7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의 어선수는 70척 정도이고, 어선의 규모는 1.5톤부터 8톤까지 있으며 평균 5톤 정도 된다. 이 마을은 예전에 해수욕장으로도 유명해 관광수입도 많았었는데, 1980년대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관광수입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로 인하여 해산물을 잡을 수가 없고 또 양식업 허가도 나오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 어민들은 삼각망 어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삼각망 어업으로는 주로 농어, 광어와 도미 등을 잡는다. 삼각망 어업외에 유자망, 저인망과 통발 어업 등도 영위하고 있는데, 유자망 어업으로는 꽃게를, 저인망 어업으로는 새우와 소라 등을, 그리고 통발 어업으로는 봉장어와 민꽃게 등을 잡는다. 봄(4월 - 6월), 가을(9월 - 11월)로 3개월씩 연중 6개월 가량 조업하며, 출어시 형제 등 가족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족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로 의지에서 온 선원을 고용한다. 선주가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수채(이 지역에서는 이를 '고부고부'라 칭함)에 의

해 수입을 배분하는데, 먼저 선주에게 수입의 반을 배분하고 나서(어선 및 어구의 몫이라 할 수 있음) 나머지 반을 선주와 선원이 균등 분배한다. 예를 들어 선원을 2명 고용하여 경비를 빼고 1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면, 선주가 먼저 50만원을 가지며 나머지 50만원을 3으로 나누어 균등 분배함으로써 결국 선주는 66만원, 선원들은 17만원씩을 갖게 된다. 이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에 당제를 지내는데 제는 선창고사, 용왕제, 거리제 등으로 이어지며, 선주들은 제당(祭堂) 부근에 수십 개의 풍어(豐漁), 만선(滿船) 깃발을 꽂고 풍어와 안녕을 기원한다.

B마을은 55호에 인구 210명의 비교적 조그만 마을로 어업과 농업 종사자가 반반 정도 된다. 근래 어업에 좀더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이 마을에는 어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있다. 마을의 어선수는 26척으로 보통 3톤 내지 5톤 규모의 어선들이다. 유자망, 삼중망, 조망 어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꽃게, 왕새우와 꽃새우 등을 주로 잡는다. 그런데 마을 바로 앞쪽 바다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에 속해서 어업구역이 제한되는 등 어업허가구역의 부적절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심지어 마을 어선이나 어망이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전북 어민들이 어구를 훼손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공어초 때문에도 어구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구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마을 어민들은 다른 마을보다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 어선 및 어로장비 등에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비해 어업수지는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도 매년 정월 초이렛날에 거리제를 지내는데 대동을 편하게 하고 재난이 닥치지 않게끔 기원하며, 제를 지낸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잔치를 벌인다.

C마을은 98호에 492명이 살고 있는 해변 마을이다. 60-70%의 가구가 순전히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0% 정도는 어업과 농업을 겸하고 있다. 이전에 농사를 짓지 않던 어민들도 최근 IMF의 구제금융사태 이후에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농사라도 지으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이 마을은 군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에 속했었는데, 지금은 어업이 성하면서 제일 잘 사는 마을 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 마을은 25-40세의 젊은층이 60명 정도로서 다른 어촌과는 달리 젊은층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도시로 나갔던 젊은이들이 1993년경부터 점차 되돌아오기 시작하였고 또 외지 인구의 유입도 활발한 편이어서 젊은층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젊은층의 증가는 이 마을이 어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마을의 어선수는 70척 정도인데 1993년부터 5톤 미만의 노후 목선을 합성수지(FRP)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어선의 대형화와 각종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소득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 마을 항구는 제1종 어항으로서 인근 마을 어선까지 합쳐서 180-190척이 정박하고 있다. 이 마을은 연안 개량 안강망을 이용한 어업이 주된 어업형태이며, 실치, 멸치, 새우, 그리고 기타 잡어 등을 잡고 있다. 1997년 봄 사업(3월초-6월말)의 경우 어선 한 척당 평균 8-9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어획고가 급격히 떨어져서 3-4천만원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한다. 안강망 어선의외에 10척 정도는 통발과 채낚기 어선인데, 통발 어업으로는 붕장어, 민꽃게, 소라, 낙지 등을 잡으며 채낚기 어업으로는 농어, 도미, 우럭, 놀래미 등을 잡는다. 이 마을은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A마을과는 달리 주로 월급제를 활용하고 있다. 월급은 경력과 기술 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초보자의 경우에는 월 80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만원 정도이고, 중간급은 100 - 120만원, 최고 일꾼의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라 한다. 그리고 이 마을은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낚시꾼 등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앞으로 관광어촌으로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도 음력 정월 초이렛날에 뽕어제를 지낸다. 그렇지만 최근 젊은층들이나 기독교 신자들은 옛부터 지내온 뱃고사도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D마을은 80호에 2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전형적인 영세 어촌이다. 이 마을의 경우 젊은층들은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여 거의 없고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50 -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마을은 선착장도 없어서 어선보유 가구가 3호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모두 1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보다는 굴, 바지락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을 주로 하고 있다. 1개월에 20일 정도 조업을 하는데 1인당 하루 평균 3 - 5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농업은 쌀농사를 주로 하는데 적게는 500평 많게는 8,000평 정도 경작하며 평균적으로는 2,500 - 3,000평 정도 경작한다. 근래에는 기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모내기를 할 때에도 품앗이를 한다든지 마을공동체 단위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밭농사는 논농사보다 규모가 작아서 가구당 대략 500평 정도씩 경작하고 있다. 해변 경관이 휴양지로 안성맞춤이어서 여름에는 휴가인파가 많이 찾아오는데 관광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쓰레기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당제나 뽕어제 등 마을공동체적 제의(祭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2) 표본의 특성

설문조사는 앞에 소개한 4개 어촌의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을별 설문응답자 분포는 A마을이 41명, B마을이 24명, C마을이 40명, 그리고 D마을이 14명이다. 설문응답자들의 개인 특성은

<표 7>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구 분	빈 도 수	비 율(%)	비 고
연 령	20 - 29세	3	2.5	최저연령 : 23세 최고연령 : 72세 평균연령 : 46세
	30 - 39세	36	30.3	
	40 - 49세	34	28.6	
	50 - 59세	26	19.3	
	60세 이상	20	16.8	
성 별	남	94	79.0	
	여	25	21.0	
학 령	국 중	53	44.5	
	중 중	38	31.9	
	고 중	24	20.2	
	전문대졸	2	1.7	
	기 타	2	1.7	
종 교	불 교	25	21.0	
	기 독 교	51	42.9	
	천 주 교	2	1.7	
	민간신앙	4	3.4	
	없 음	32	26.9	
	기타/무응답	5	4.2	
합 계		119	100.0	

<표 7>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30세에서 49세까지가 58.9%, 50세 이상은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6세이다. 어촌의 인구구성에 비해 젊은층이 조사대상자에 많이 포함된 반면 50세 이상의 어민이 적게 포함된 것은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설문지 응답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된 것이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94명으로 79.0%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는 25명으로 21.0%를 차지하고 있다.

어민의 학력과 교육수준은 그들의 의식수준과 신기술 수용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44.5%(53명)로 가장 많으며, 중학교 졸업이 31.9%(38명),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 20.2%(24명)를 차지하고 있어서 응답자 대부분(96.6%)이 고졸 이하 학력의 소유자들이다. 다음으로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 신자가 51명(42.9%)으로 가장 많고, 불교 신자가 25명(21.0%), 천주교 신자가 2명(1.7%)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신앙을 믿는다는 사람이 4명(3.4%) 있고, 32명(26.9%)의 응답자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2. 어업생산구조

1) 어업종사방식

먼저 조사대상 어촌의 어업종사방식을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전히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專業) 어민이 전체 응답자의 49.2%로 58명이고,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농업도 약간 하는' 주어종농(主漁從農)의 어민은 23.7%로 28명이다. 즉, 응답자의 72.9%가 농업보다 어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어업과 농업에 거의 비슷하게 종사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민 및 '주로 농사를 짓고 어업도 약간 하는' 주농종어(主農從漁) 어민은 각각 13.6%(16명)와 10.2%(12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순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은 조사대상자 중에 단 1명(0.8%)에 그치고 있다.

<표 8> 조사대상 어촌별 어업종사방식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계
1) 순어업(純漁業)	28 (70.0)	9 (37.5)	21 (52.5)		58 (49.2)
2) 주어종농(主漁從農)	6 (15.0)	6 (25.0)	16 (40.0)		28 (23.7)
3) 반농반어(半農半漁)	2 (5.0)	3 (12.5)	2 (5.0)	9 (64.3)	16 (13.6)
4) 주농종어(主農從漁)	1 (2.5)	5 (30.8)	1 (2.5)	5 (35.7)	12 (10.2)
5) 순농업(純農業)		1 (4.2)			1 (0.8)
6) 기타	3 (7.5)	0 (0.0)			3 (2.5)
계	40 (100.0)	24 (100.0)	40 (100.0)	14 (100.0)	118 (100.0)

$\chi^2=77.23, d.f.=15, p=.000$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이러한 직업구성은 어촌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항(漁港) 등 어업 여건이 좋은 A마을과 C마을은 어업이 성해서 조사대상자들의 대다수가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B마을은 A마을이나 C마을에 비해서 전업 어가(37.5%)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반농반어의 겸업 어가 및 농업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주민(主農從漁)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어선보유가구도 적고 또 어로어업보다는 주로 굴, 바지락 등의 채취어업에 종사하는 D마을의 경우에는 농업보다 어업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가구(純漁業, 主漁從農)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반농반어의 겸업 어가와 주농종어(主農從漁) 가구가 각각 64.3%와 35.7%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논농사는 적게는 85명에서 많게는 8,000명까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700명 정도이다. A,B,C 마을은 평균 1,000 - 1,500명 정도의 소규모 논농사를 하고 있으며, D마을의 평균은 이보다 많은 2,800명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밭농사는 평균 500명 정도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밭농사 규모는 마을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선보유현황

조사대상자의 어선보유현황을 보면 80.5%(95명)가 어선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9.5%(23명)는 어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취어업을 주로 하는 D마을의 경우 어선보유가구가 별로 없는 반면, 어로어업을 주로 하는 A,B,C의 세 마을은 당연히 어선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

<표 9> 조사대상 어촌별 어선보유현황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계
1) 소유	34 (85.0)	18 (75.0)	40 (100.0)	3 (21.4)	95 (80.5)
2) 비소유	6 (15.0)	6 (25.0)		11 (78.6)	23 (19.5)
계	40 (100.0)	24 (100.0)	40 (100.0)	14 (100.0)	118 (100.0)

다. 특히 C마을의 경우에는 응답자 전원이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선의 규모로는 0.5톤의 소형 어선에서부터 큰 어선으로는 7.93톤까지 있으며, 평균 4.5톤 정도 된다.

3) 어업형태

조사대상자의 어업형태를 살펴보면, 어로어업이 76.4%(84명)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수산물의 채취 어업이 13.6%(1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7.3%(8명)는 어로 어업과 채취 어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식업이나 수산제조업은 1.8%(2명)와 0.9%(1명)로 극소수에 머물렀다. 어업형태도 조사대상 어촌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A,B,C의 세 마을은 주로 채취어업보다는 어로어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D마을은 굴, 바지락 등의 채취어업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C마을의 경우에는 응답자 전원이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경영론집

<표 10> 조사대상 어촌별 어업형태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계
1) 어로어업	30 (83.3)	14 (70.0)	40 (100.0)		84 (76.4)
2) 수산물외 채취	2 (5.6)	2 (10.0)		11 (78.6)	15 (13.6)
3) 어로어업+채취어업	4 (11.1)	1 (5.0)		3 (21.4)	8 (7.3)
4) 양식업		2 (10.0)			2 (1.8)
5) 수산제조업		1 (5.0)			1 (0.9)
계	36 (100.0)	20 (100.0)	40 (100.0)	14 (100.0)	110* (100.0)

* A마을에서 5명, B마을에서 4명이 무응답자임.

3. 어촌경제 실태

1) 소득수준

조사대상 어촌의 소득수준은 500만원 미만에서부터 5,000만원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 수준은 1,500 - 2,0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어촌간에 소득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마을은 1,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43.6%, 1,000 - 2,000만원의 소득자가 38.4%, 그리고 2,000 - 5,000만원의 소득자가 18.0%로 나타났다. B마을은 1,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38.1%인 반면, 1,000 - 2,000만원의 소득자가 57.2%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2,000 - 3,000만원의 소득자는 4.8%에 그치고 있다. 평균 소득으로 따지자면 A, B마을은 1,500만원 정도가 된다. 한편, C마을은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D마을은 소득수준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을 보면, C마을은 2,000 - 3,000만원의 소득자가 10.0%, 3,000 - 5,000만원의 소득자가 52.5%,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35.0%로 나타남으로써 조사대상자 대부분(97.5%)이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반면에, D마을은 1,0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14.2%에 불과하고, 5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21.4%, 500 - 700만원의 소득자가 50.0%, 그리고 700 - 1,000만원의 소득자가 14.3%로 나타남으로써 조사대상자 대부분(85.8%)이 1,000만원 미만의 낮은 소득에 머물고 있다.

어업형태에 따라서도 소득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어업형태별 소득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로어업은 2,000만원 미만의 소득과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반반인 반면, 채취어업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모두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어로어업의 경우가 채취어업의 경우보다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형태에 따라서도 소득수준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2=25.908$, $d.f=12$, $p=.011$).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의존도가 높은 '순어업'과 '주어종농' 종사자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소득자가 45.6%와 63.0%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반농반어'와 '주농종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표 11> 조사대상 어촌별 소득수준

어촌 소득수준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합 계
1) 500만원 미만	4 (10.3)	1 (4.8)	1 (2.5)	3 (21.4)	9 (7.9)
2) 500 - 700만원	6 (15.4)	2 (9.5)		7 (50.0)	15 (13.2)
3) 700 - 1,000만원	7 (17.9)	5 (23.8)		2 (14.3)	14 (12.3)
4) 1,000 - 1,500만원	8 (20.5)	9 (42.9)		1 (7.1)	18 (15.8)
5) 1,500 - 2,000만원	7 (17.9)	3 (14.3)		1 (7.1)	11 (9.6)
6) 2,000 - 3,000만원	6 (15.4)	1 (4.8)	4 (10.0)		11 (9.6)
7) 3,000 - 5,000만원	1 (2.6)		21 (52.5)		22 (19.3)
8) 5,000만원 이상			14 (35.0)		14 (12.3)
합 계	39 (100.0)	21 (100.0)	40 (100.0)	14 (100.0)	114 (100.0)

$\chi^2=122.418$, d.f.=21, p=.000

<표 12> 어업형태별 소득수준

어업형태 소득수준	어로어업	채취어업	기 타*	합 계
1,000만원 미만	20 (24.1)	11 (78.6)	5 (45.5)	36 (33.3)
1,000 - 2,000만원	19 (22.9)	3 (21.4)	4 (36.4)	26 (24.1)
2,000 - 3,000만원	8 (9.6)		2 (18.2)	10 (9.3)
3,000만원 이상	36 (43.4)			36 (33.3)
합 계	83 (100.0)	14 (100.0)	11 (100.0)	108 (100.0)

* 기타에는 양식업(2), 수산제조업(1), 어로 및 채취어업의 병행(8)을 포함하고 있음.

$\chi^2=25.082$, d.f.=6, p=.000

<표 13> 직업형태별 소득수준

직업형태 소득수준	순어업	주어종농	반농반어	주농종어	순농업	합계
1,000만원 미만	17 (29.8)	5 (18.5)	10 (66.7)	5 (45.5)		37 (33.3)
1,000 - 2,000만원	14 (24.6)	5 (18.5)	3 (20.0)	4 (36.4)	1 (100.0)	27 (24.3)
2,000 - 3,000만원	9 (15.8)	1 (3.7)		1 (9.1)		11 (9.9)
3,000만원 이상	17 (29.8)	16 (59.3)	2 (13.3)	1 (9.1)		36 (32.4)
합 계	57 (100.0)	27 (100.0)	15 (100.0)	11 (100.0)	1 (100.0)	111 (100.0)

$\chi^2=25.908$, d.f.=12, p=.011

어' 종사자의 경우에는 13.3%와 18.2%로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촌의 소득수준은 어촌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어촌간 소득차이는 어업 기반 시설, 어선 등 어업장비, 그리고 어업형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증대를 통해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업기반 시설의 확충, 어업장비의 현대화 등 어촌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어가 부채

조사대상 어민의 부채는 평균 3천 7백여 만원으로서 조사대상 어촌의 어민들은 매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평균 어가부채인 1천 234만원(<표 6> 참조)이나 최근 농림부가 조사한 농가부채 1천 300만원(한겨레신문, 98.6.9)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가 부채도 어촌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A마을과 C마을은 3천만원 정도이며, 반농반어의 영세 어촌인 D마을의 경우 평균 8백만원으로서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적은 데 반해, B마을은 8천여 만원으로 다른 마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과도한 부채는 어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가계를 더욱 곤란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업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부채상황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가부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상환 유예나 부채 탕감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표 14> 조사대상 어촌의 부채 현황 (단위 : 만원)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분산분석결과
A 마을	33	3,168	3462.5	200	13,000	F=26.335 d.f.=3,103 p=.000
B 마을	20	8,085	2849.8	4,500	16,900	
C 마을	40	3,030	1948.6	400	8,000	
D 마을	14	800	577.8	100	2,000	
합계	107	3,726	3392.5	100	16,900	

3) 주관적 계층의식

<표 15>는 어민들의 생활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응답자의 대부분(93.1%)이 평균 수준 또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반 정도(47.4%)가 '평균 수준' 응답하였고, 45.7%가 '좀 못사는 편' (34.5%) 또는 '아주 못사는 편' (11.2%)으로 응답하였으며, 6.9%만이 '아주 잘사는 편' (0.9%) 또는 '약간 잘 사는 편' (6.0%)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대한 어민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의식은 어촌의 생활수준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다는 객관적인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표 15> 생활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

생활수준 사회계층	아주 잘 사는 편	약간 잘 사는 편	평균수준	약간 못 사는 편	아주 못 사는 편	합계
상 류 층						0 (0.0)
중 류 층	1 (100.0)	5 (71.4)	16 (30.2)	3 (7.5)	1 (7.7)	26 (22.8)
하 류 층		2 (28.6)	37 (69.8)	37 (92.5)	12 (92.3)	88 (77.2)
합 계	1 (100.0)	7 (100.0)	53 (100.0)	40 (100.0)	13 (100.0)	114 (100.0)

$\chi^2=21.435, d.f.=4, p=.000$

<표 16>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

소득수준 사회계층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2-3천만원	3천만원 이상	합계
상 류 층					0 (0.0)
중 류 층	6 (16.2)	9 (31.0)	2 (18.2)	7 (19.4)	24 (21.2)
하 류 층	31 (83.8)	20 (69.0)	9 (81.8)	29 (80.6)	89 (78.8)
합 계	37 (100.0)	29 (100.0)	11 (100.0)	36 (100.0)	113 (100.0)

$\chi^2=2.352, d.f.=3, p=.503$

이러한 부정적 의식은 어민들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민들의 대다수(77.2%)는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하류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기존 조사들에 의하면 중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80-90%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어민들의 22.8%만이 중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상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의식과 주관적 계층의식간에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i^2=21.435, d.f.=4, p=.000$), 생활수준이 평균 수준 이하라고 의식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92% 이상) 자신들이 하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352, d.f.=3, p=.503$).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70-80%의 응답자가 하류층에 귀속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반드시 소득수준 등 객관적인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관적 계층의식 및 생활수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태도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점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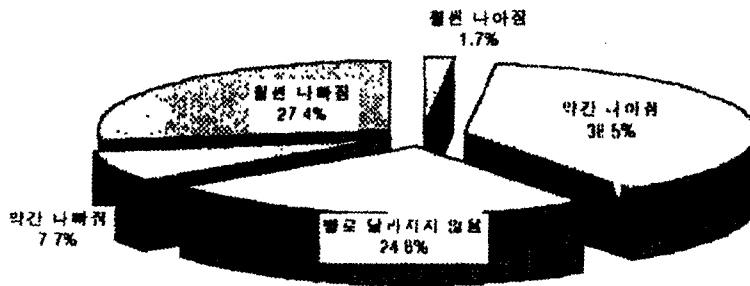
4) 어촌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최근 어촌경제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5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응답이 40.2%(훨씬 나아짐 1.7%, 약간 나아짐 38.5%)로 나빠졌다는 응답 35.1%(약간 나빠짐 7.7%, 훨씬 나빠짐 27.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응답자 4명중에 1명(24.8%) 정도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촌경제 사정이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각각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어촌경제 사정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53.8%), 다음으로 '어업기술이 발달해서(15.1%)'와 '어촌계의 원활한 운영 때문(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산정책이 적절해서(4.2%)'와 '수산물의 가격이 올라서(0.8%)'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어획량이 늘어났기 때문(0.0%)'이라는 응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촌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환경오염,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어업자원이 감소하고 어획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56.3%), 다음으로 '수산물 가격이 떨어져서(19.3%), '어업기술이 뒤떨어져서 (13.4%)'와 '수산 행정과 정책이 부적절해서(5.9%)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어촌계의 부실 운영(1.7%)'이나 '어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0.0%)'에 어촌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물 가격의 하락 등 열악한 어업환경이 어촌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어촌경제를 나름대로 좋아지게 만든 요인으로는 어민들의 근면과 노력이 주로 꼽히고 있다. 다시 말



<그림 1> 어촌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1) 수산물 생산량이 전에 비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생산량이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응답이 78.0%(‘약간 떨어짐’ 17.8%, ‘훨씬 떨어짐’ 60.2%)로 전보다 늘어났다는 응답(17.8%: ‘훨씬 늘어남’ 0.8%, ‘약간 늘어남’ 16.9%)이나 예전과 비슷하다는 응답(4.2%)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표 17> 어촌경제 사정이 호전 또는 악화된 이유

어촌경제 사정이 호전된 이유	빈도수(%)	어촌경제 사정이 악화된 이유	빈도수(%)
1) 수산물 가격이 올라서	1 (0.8)	1) 수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23 (19.3)
2) 어업기술이 발달해서	18 (15.1)	2) 어업기술이 뒤떨어져서	16 (13.4)
3) 수산정책이 적절해서	5 (4.2)	3) 수산 행정과 정책이 부적절해서	7 (5.9)
4) 어촌계의 원활한 운영으로	9 (7.6)	4) 어촌계의 부실운영으로	2 (1.7)
5) 어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64 (53.8)	5) 어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0 (0.0)
6) 어획량이 늘어나서	0 (0.0)	6) 환경오염,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어자원이 감소하고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67 (56.3)
7) 무응답	22 (18.5)	7) 무응답	4(3.4)
합 계	119 (100.0)	합 계	119 (100.0)

해, 어업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어촌경제가 그만큼이나마 지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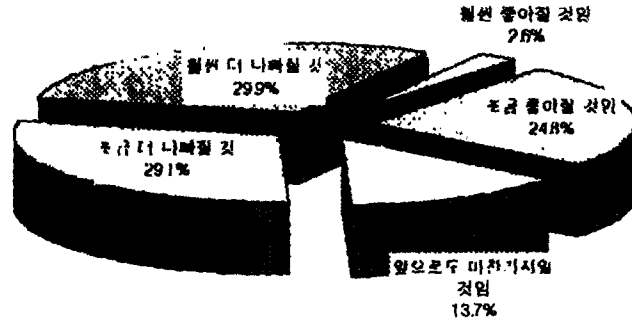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산 행정 및 정책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 행정 및 정책이 어촌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산 행정 및 정책이 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개발을 통해 어촌경제의 발달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수산정책의 수립과 수산행정의 실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어촌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어촌경제보다 앞으로의 어촌경제 사정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어촌경제 사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59.0%(조금 더 나빠질 것임 29.1%, 훨씬 더 나빠질 것임 29.9%)로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 27.4%(훨씬 좋아질 것임 2.6%, 조금 좋아질 것임 24.8%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응답은 13.7%로 나타났다. 즉, 앞으로의 어촌경제에 대해 어민들이 매우 어두운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획량의 감소, 수산물 가격의 하락, 부채상환 문제 등으로 인해 어업수지가 악화되어 앞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어민들과의 면접 과정에서도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어촌경제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달리 다른 기술도 없고 또 어

수산경영본질



<그림 2> 어촌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

러 가지로 투자를 해둔 것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갖고 마지못해 어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4. 어민들의 직업의식과 직업만족도

1) 직업의식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얼마나 긍지를 느끼고 있는지 조사해 봤는데, 긍지를 느낀다고 응답한 어민들이 59.2%(긍지를 매우 많이 느낌 15.7%, 약간 느끼는 편 43.5%)로 긍지를 느끼지 못한다는 어민(21.8%; 긍지를 거의 못 느낌 14.8%, 전혀 못 느낌 7.0%임)이나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어민들(19.1%)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어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별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어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다는 응답과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29.5%와 27.8%로서 거의 비슷하게 낮은 수준인 반면, 그저 그렇다는 중간 입장은 42.6%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어민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각'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서로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chi^2=59.047, d.f.=16, p=.000$). 즉, 어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도 더 많이 느끼고 있고, 반대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직업에 대한 긍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민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직업만족도와 근로의욕

어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9.1%(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없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만 39.1%임)로 불만이라는 응답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표 18> 직업에 대한 긍지와 어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	어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합계
	매우 좋음	좋은 편임	보통임	나쁜 편임	매우 나쁨	
매우 많이 느낌	1 (50.0)	5 (15.6)	8 (16.3)	4 (14.3)		18 (15.7)
약간 느낌		24 (75.0)	19 (38.8)	7 (25.0)		50 (43.5)
보통	1 (50.0)	2 (6.3)	13 (26.5)	6 (21.4)		22 (19.1)
거의 못 느낌		1 (3.1)	6 (12.2)	9 (32.1)	1 (25.0)	17 (14.8)
전혀 못 느낌			3 (6.1)	2 (7.1)	3 (75.0)	8 (7.0)
합 계	2 (1.7)	32 (27.8)	49 (42.6)	28 (24.3)	4 (3.5)	115 (100.0)

$\chi^2=59.047$, d.f.=16, p=.000

<표 19> 직업만족도와 근로의욕

직업만족도 근로의욕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합계
매우 의욕적		4 (9.3)				4 (3.6)
대체로 의욕적		31 (72.1)	10 (23.8)			41 (37.3)
그저 그렇다		2 (4.7)	13 (31.0)	2 (11.8)		17 (15.5)
별로 의욕 없음		6 (14.0)	18 (42.9)	11 (64.7)	6 (75.0)	41 (37.3)
전혀 의욕 없음			1 (2.4)	4 (23.5)	2 (25.0)	7 (6.4)
합 계	0 (0.0)	43 (39.1)	42 (38.2)	17 (15.5)	8 (7.3)	100 (100.0)

$\chi^2=71.875$, d.f.=12, p=.000

22.8%(대체로 불만 15.5%, 매우 불만 7.3%)보다 더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38.2%로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일할 의욕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욕적이라는 응답이 40.9%(매우 의욕적 3.6%, 대체로 의욕적 37.3%)로 일할 의욕이 없다는 응답 43.7%(별로 의욕 없음 37.3%, 전혀 의욕 없음 6.4%)보다 약간 적게 나타나고 있다. 즉, 10명중에 약 4명 정도는 일할 의욕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어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욕 상실은 어획량의 감소, 수산물 가격의 하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만족도와 근로의욕간에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hi^2=71.875$, d.f.=12, p=.000). 어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만족할수록 일할 의욕을 더 갖고 있는 반면에, 어업 종사에 대해 불만을 가질수록 일할 의욕도 동시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득수준도 직업만족도($\chi^2=30.883$, d.f.=9, p=.000) 및 근로의욕($\chi^2=71.875$, d.f.=12,

<표 20> 자녀의 어업 종사에 대한 부모의 의견

	빈도수	비율(%)
1) 적극 찬성한다	0	0.0
2) 찬성하지만 권하지는 않는다	22	18.8
3) 모든 것을 본인 의사에 맡긴다	33	28.2
4) 반대하지만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	27	23.1
5) 적극 반대한다	35	29.9
합 계	117	100.0

$p=.000$ 과 각각 유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만족 수준도 높고, 근로 의욕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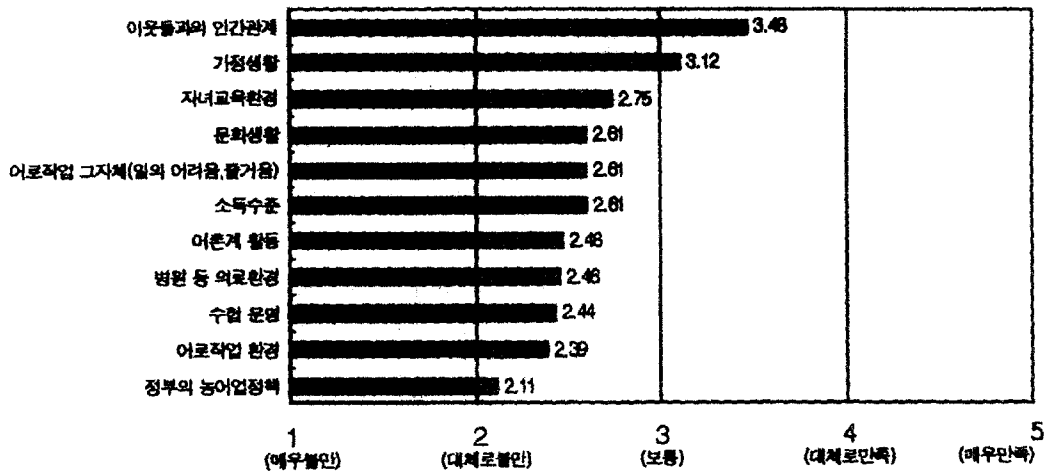
자녀가 어촌을 지키고 싶다고 하는 경우 부모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9%가 적극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23.1%가 본인 의사를 존중하지만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53.0%가 자녀의 어업 종사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18.8%인데 이들 모두가 '찬성하지만 권하지는 않는다' 입장이었다고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하나도 없었다. 한편, 모든 것을 본인 의사에 맡긴다는 응답은 28.2%로 나타났다. 자녀의 어업 종사에 대한 의견은 어민들의 어업에 대한 생각을 대표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자녀의 어업 종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으로써 어민들이 어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세대의 어업을 책임질 어민후계자를 양성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항목별 어촌생활만족도

<그림 3>은 어촌생활을 하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로 어촌생활 만족도를 측정했을 때, 보통 수준(3.0) 이상의 만족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경우는 '이웃들과의 인간관계(3.48점)'와 '가정생활(3.12점)'의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3.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낮은 만족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항목은 '정부의 농어업정책'에 대한 만족도로서 2.11점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농어업정책에 대해서 어민들이 매우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로작업 환경(2.39점)', '수협 운영(2.44점)', '병원 등 의료환경(2.46점)', '어촌계 활동(2.48점)', '소득수준(2.61점)', '어로작업 그 자체(일 자체의 어려움이나 즐거움 등)(2.61점)', '문화생활(2.61점)', 그리고 '자녀교육환경(2.7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생활(3.12점)'과 '이웃들과의 인간관계(3.48점)'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어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어촌생활의 경우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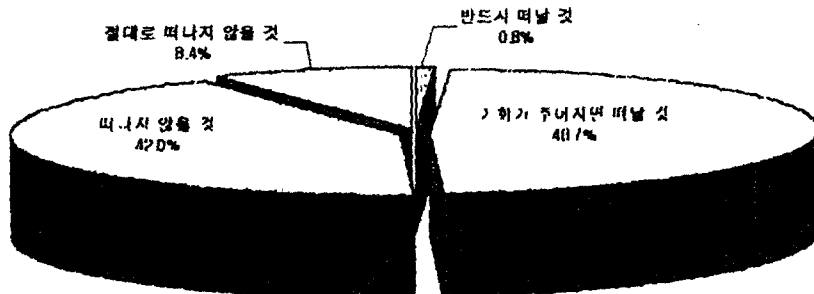


<그림 3> 항목별 어촌생활만족도

4) 이어(離漁)의사

앞으로 어촌을 떠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떠날 것이라는 응답(49.6%)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50.4%)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 '반드시 떠날 것'이라는 응답(0.8%)이나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8.4%) 등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는 적은 반면, '기회가 주어지면 떠날 것'이라는 응답(48.7%)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42.0%)을 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어의사는 연령($\chi^2=21.013$, d.f.=12, $p=.050$), 어업종사 만족도($\chi^2=16.157$, d.f.=6, $p=.013$), 직업에 대한 긍지($\chi^2=33.227$, d.f.=12, $p=.001$), 그리고 근로의욕($\chi^2=28.447$, d.f.=12, $p=.005$) 등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수준($\chi^2=8.563$, d.f.=12, $p=.740$), 소득수준($\chi^2=15.451$, d.f.=9, $p=.079$), 어촌경제전망($\chi^2=17.109$, d.f.=12, $p=.146$) 등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어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할수록,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지를 못 느낄수록 이어의사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어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만큼 근로의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이어(離漁)의사

어촌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3%가 '어업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 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27.7%가 '장래 희망이 없기 때문' 을, 그리고 13.4%는 '어업이 힘들기 때문' 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자식 교육 때문(5.0%)',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해서(2.5%)' 와 '자식들이 어촌을 떠났기 때문(2.5%)'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수지의 악화와 장래에 대한 비전 상실 등이 어촌 생활을 어렵게 하고 결국 어촌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교육문제(37.3%)가 가장 중요한 이촌(離村)이유로 조사되었던 공용식·최정운·이강우(1984, 68쪽)의 연구결과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촌이유로 자녀교육문제(37.3%), 저소득(22.1%), 생활의 불편(18.7%), 직업불만(8.3%), 결혼조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나름대로 찾아보면,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자녀교육문제나 생활의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 한 어촌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 취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취학중이거나 취학예정인 자녀가 줄어들면서 자녀교육문제가 덜 중요한 요인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촌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2.5%의 많은 응답자가 '떠나고 싶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달리 기술도 없기 때문' 을 지목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업이 타고난 직업(天職)이기 때문에(17.9%)', 그리고 '어촌에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9.8%)' 의 순이었

<표 21> 어촌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와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

어촌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	빈도수 (%)	어촌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	빈도수 (%)
1) 어업수지가 맞지 않아서	48(40.3)	1) 떠나고 싶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달리 기술도 없기 때문에	70 (58.8)
2) 장래 희망이 없기 때문에	33 (27.7)	2) 어업이 타고난 직업(天職)이기 때문에	20 (16.8)
3) 어업이 힘들어서	16 (13.4)	3) 어촌에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11 (9.2)
4) 자식 교육 때문에	6 (5.0)	4) 고향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4 (3.4)
5)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해서	3 (2.5)	5) 현재의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3 (2.5)
6) 자식들이 떠났기 때문에	3 (2.5)	6)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2 (1.7)
7) 무응답	10 (8.4)	7) 주택구입 등 도시에 정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2 (1.7)
		8) 무응답	7 (5.9)
합 계	119 (100.0)	합 계	119 (100.0)

다. '고향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3.6%)', '현재의 재산을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2.7%)',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1.8%)' 와 '주택구입 등 도시에 정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1.8%)' 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요컨대, 어업이 타고난 직업이고 그 외의 다른 기술도 없어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어민들로 하여금 어촌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에 대한 연구는 조직몰입을 단일 차원의 것이 아니라 복수 차원의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감정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과 유지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으로 구분하고 있다(Meyer & Allen, 1984; Meyer, Allen & Smith, 1993). 감정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와 감정적 애착을 바탕으로 조직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또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의사를 말하는 반면, 유지적 몰입은 감정적 차원보다는 계산적 차원의 몰입으로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등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는 현 직장 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 여러 가지 개인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몰입 개념에 기초하여 어민들의 이어의사를 분석해 보자면,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려는 의사는 감정적 몰입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유지적 몰입 차원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성원의 직무성과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감정적 몰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지적 몰입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Meyer et al., 1989)에서 어민들의 이러한 몰입방식은 어민들의 직업만족도나 근로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어의사와 관련된 항목으로서 어촌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내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았다. 어촌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34.2%가 '부채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꼽고 있어서 어가부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어로 작업이 힘들고 위험하다(30.8%)', '수입이 너무 적다(12.8%)' 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하다(12.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 교육환경이 나쁘다(5.1%)',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3.4%)' 와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다(1.7%)' 등은 소수 의견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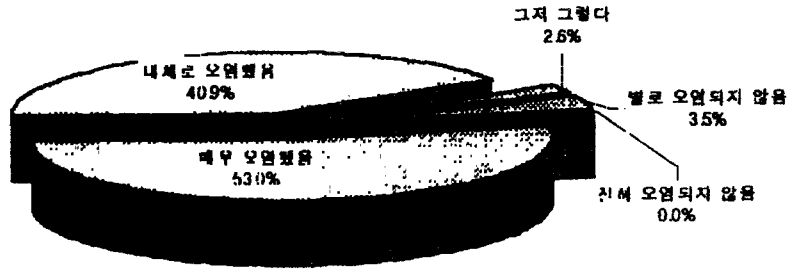
5. 환경오염 문제

1) 환경오염

주변 해안이 얼마나 오염됐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93.9%의 응답자가 오염됐다고 답했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과 '별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6%와 3.5%로 극소수에 그쳤으며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오염됐다는 응답의 경우에도 '매우 많이 오염됐다'는 응답이 53.0%로 '대체로 오염됐다'는 응답 40.9%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변 해안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주변 해안오염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5%가 '공장 배수 때문'을 지목했고, 37.1%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17.2%의 응답자가 '생활하수

수산경영론집



<그림 5> 환경오염의 정도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유류방출 때문(2.6%)'과 '양식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2.6%)'이라는 의견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생활하수보다는 공장 폐수나 쓰레기가 주변 해안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장 폐수 문제는 조사대상 어촌에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는 조사지역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식장의 노후화나 양식장 관리 문제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지 않는 것도 조사대상 어촌 인근에 양식업이 성행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쓰레기 문제의 경우에는 면접조사 결과 폐비닐 등이 해안에 쌓이는 게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폐비닐 등의 쓰레기로 인하여 어패류들이 제대로 산란하고 또 서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면접에 임했던 어민들은 바다를 막아 국토를 넓히는 매립·간척 사업도 오히려 어촌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바다를 막아 놓아서 어패류가 산란·서식할 장소가 없어지게 되고, 또 과거 황금어장이었던 곳도 바다 매립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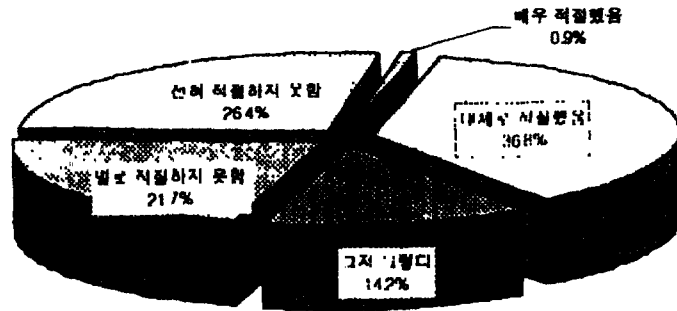
2) 어업손실 피해보상

환경오염으로 인해, 또는 간척사업후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어업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업손실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먼저, 어업손실피해보상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3%가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 35.7%는 피해보상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어업손실피해보상이 얼마나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8.1%(별로 적절하지 못함 21.7%, 전혀 적절하지 못함 26.4%)로 적절했다는 응답 37.7%(매우 적절 0.9%, 대체로 적절 36.8%)보다 더 많았으며, 14.2%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어업손실피해보상이 그리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어업손실피해보상이 생활수준을 유지·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3%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함으로써(매우 도움이 됨 1.9%, 대체로 도움이 됨 44.4%)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그림 6> 어업손실피해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40.8%(별로 도움이 안됨 13.0%, 전혀 도움이 안됨 27.8%)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업손실피해보상이 생활수준을 유지·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과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이와 같이 양분되고 있어서 그 효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개개 사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1. 조사결과의 요약

이제까지 어촌경제의 개황을 살펴보고, 또한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어촌 사회의 실태 및 어촌문제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어촌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어촌사회의 주요 문제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심각한 어촌문제로서 어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어업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들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 부문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감으로써 어업부문의 인구 및 노동력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어업노동력의 부족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다수의 젊은층들이 어촌을 떠남으로써 어업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다음 세대에 어업에 종사할 어민후계자가 거의 고갈되는 심각한 현실에 당면하게 되었다.

둘째, 어업생산량 및 어업생산액의 저성장 문제, 그리고 단위생산성의 저하 문제이다. 1970-80년대 증가추세를 보이던 어업생산량과 어업생산액이 1990년대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어업생산액이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 대비 어업생산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어업이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어선세력은 매년 증대되고 있는 반면 총어획량은 정체 상태에 있음으로써 어선 톤당 어업생산량 및 마력당 어업생산량이 1974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왔다. 즉, 어선세력당 단위생산성이 저하되어 왔다고 하겠는데, 이는 매립·간척으로 인한 연근해어장의 축소,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어장환경의 악화, 그리고 수산자원의 남획 등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어가경제의 악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어가소득의 지속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 가
구소득에 대비한 어가소득의 비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1996년도에는 73.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도시와 어촌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
가부채의 급증도 어촌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가부채는 1996년 현재 평균
1,234만원으로서 1980년의 56만원에 비해 22배나 증가하였다. 1980년만 해도 어가소득의 21.6%에
불과하던 부채의 비중이 1996년에는 64.8%에 이르게 되었다.

어촌사회의 현실태를 좀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또한 실시하
였는데, 주요 결과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4개 어촌의 평균 소득은 1,500 - 2,000만원 정도인데, 4개 어촌간에 소득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 어선 등 어업장비 및 어업형태의 차이로 인해서 어촌간
소득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 어민들의 부채가 평균 3천 7백여 만원으로서 전국 평균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부채는 어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금리상승으
로 인해 가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어업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부채상황이 더
욱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 어민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평균 수준 또는 평균 수준 이하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에 있어서 대다수가 하류계층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관
적 계층의식 및 생활수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도, 그리고
근로의욕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라 하겠다.

넷째, 어민들은 어촌경제의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어획량
의 감소, 수산물 가격의 하락, 부채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어촌경제에 대해 매우 어두
운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나 어업종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
적 시각이 좀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어업에 대한 어민들의 솔직한 생각을 대표하는 것
대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어업 종사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
다. 즉, 자녀의 어업 종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으로써 어민들이 어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다음 세대의 어업을 책임질 어민후
계자를 양성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하겠다.

여섯째, 어촌생활의 각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웃들과의 인관관계'와 '가정생활'의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낮은 만족지수를 보이고 있다. 즉, 어촌생활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곱째, 이어(離漁)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 어촌을 떠날 생각이라는 응답과 떠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 어촌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로는 '어업수지가 맞지 않아서', '장래 희망
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업이 힘들어서' 등이 주를 이룸으로써 어업수지의 악화와 장래에 대한

비전 상실이 어촌생활을 어렵게 하고 결국 어촌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어촌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떠나고 싶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달리 기술도 없는 때문' 과 '어업이 타고난 직업(天職)이기 때문에' 등이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 어업이 타고난 직업이고 그 외의 다른 기술도 없어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어민들로 하여금 어촌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주변 해안의 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안오염의 원인으로는 공장 폐수와 쓰레기 문제가 주로 지목되고 있다.

아홉째, 환경오염 또는 개발과정에서의 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한 어업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업손실피해보상이 얼마나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 결과, 적절했다는 응답보다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남으로써 어업손실피해보상이 그리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어업손실피해보상이 생활수준을 유지·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보다 약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피해보상이 나뉠대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토 론

이제까지의 분석결과 어촌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한 어업생산의 위축, 이로 인한 소득감소와 부채증가 등 어가경제의 악화, 그리고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어촌의 위기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 및 생활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어촌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근로의욕의 상실, 자녀의 어업 종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 어촌생활 요소들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도 어촌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조사결과들이다.

이러한 어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소득·고용기회의 제공, 해양환경보전, 어촌지역의 균형 발전 및 국가 해양력 증대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한국수산회, 1996, 57쪽).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을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어촌소득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어선 등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사의 결과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촌과 그렇지 못한 어촌간에 소득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어선 및 어로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어장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족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원관리형 어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족자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장을 깨끗이 정화하고 어족자원을 풍요롭게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촌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시설의 현대화, 보건의료 및 교육문화 시설의 확충, 교통·통신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어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수산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품종 어류개발과 새로운 증양식기술의 개발 등 실용적인 수산기술의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통·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 어촌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어가부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촌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어가부채의 상환 유예, 대출금 이자의 경감이나 부채의 탕감조치 등 적극적인 방안이 수립·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어촌의 어민을 포함한 주민들의 생산증대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시하여 이들의 생활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여 이것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의 동기를 함께 불어넣는 데 목표를 두는 어촌종합개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107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까지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인 어촌사회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어촌사회에 대한 연구는 도시부문이나 농촌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간과되어 온 어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촌문제에 대한 어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어촌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촌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현재의 어촌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어민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어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촌개발 등 어업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어촌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앞에서 제시해 보았다.

그렇지만 본 조사가 충청 서해안의 4개 연안어촌에 국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표본의 수가 적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우리나라 어촌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좀더 많은 어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해, 서해, 남해 등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연안형 어촌뿐만 아니라 도시형 어촌 및 취약지역 어촌(낙도나 벽지어촌 등)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로어업 가구뿐만 아니라 양식어업 및 수산제조업 가구 등도 포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용식·최정윤·이강우, "어촌개발을 위한 사회·경제적 연구," 수산경영론집, 15.2, 1984, 39 - 124쪽.
- 김우성, "漁村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15.2, 1984, 24 - 38쪽.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 이강우, "우리나라 어촌의 복지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16.2, 1985, 52 - 74쪽.
- 이현우, "어촌지역주민들의 어업관 인지에 관한 고찰," 수산경영론집, 21.1, 1990, 1 - 19쪽.
- 장수호, "漁村契組織에 관한 연구 I," 수산경영론집, 9.2, 1978, 26 - 44쪽.
- 장수호, "漁村契組織에 관한 연구 II," 수산경영론집, 10.1, 1979, 1 - 22쪽.
- 천주교광주대교구 사회교육부(편), 어촌실태조사연구보고서, 광주: 빛고을출판사, 1988.
- 최재율, "어촌의 사회구조와 어민의 생활태도: 서남해안의 연안어촌을 중심으로," 한일농어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유풍출판사, 1991.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7.
- 한겨레신문, 1998. 6. 9.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문제의 이해, 서울: 한길사, 199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장·어항·어촌을 통합한 어촌종합개발 모형수립에 관한 연구, 1995.
-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새로운 사회학강의, 서울: 미래사, 1990.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1996.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1997.
- 홍경희, 도시·촌락조사법, 서울: 법문사, 1987.
- Meyer, J.P. & Allen, N.J. (1984), "Testing the 'Side - Bet Theory'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3, pp.372 - 378.
- Meyer, J. P., Allen, N.J., & Smith, C.A. (1993), "Commitment to Organizations and Occupations and Test of a Three - Component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4, pp.538 - 551.
- Meyer, J. P., Paunonen, S.V., Gellatly, I.R., Goffin, R.D., & Jackson, D.N. (1989),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It's the Nature of the Commitment That Cou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1, pp.152 - 156.

An Investigation on the Actual State of the Fishing Villages and the Attitudes of Fishermen

Kim, Young - Joe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ishing villages and the attitudes of fishery workers. In this study, field research, interview method, and survey research method are utilized. The regions of this research are 4 fishing villages of the Yellow Sea coast and the survey data are collected from 119 fishermen.

The results show that the fishery industry has come to a crisis due to the staggering fish catches and fishery income, increasing expenditures and debt, continuous decrease in numbers of fishery workers, etc. In addition, the work morale of the fishermen appears to be very low. They take a dim view of fishery industry and their household financial status. They perceive that their qualities of life are very low as well.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e then discussed.